여강문화 5

영릉촌

문학동인회 편

여주문화원

……여강 언저리엔 옛 역사속에 또렷한 시문의 절창을 아로새긴 옛 시인 백운거사 이규보 월하 선유의 낭만이 되살아나는 듯 싶다. ……

청자수병을 노래한 구자운 시인이 잠든 땅, 예로부터 문향의 고장으로 빛나온 여주에 한춘섭 시조시인과 나는 꽤나 오랜 교분을 갖고 문향의 면모를 되살리고자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그 길은 멀다.

아무튼 시작이 반이란 말처럼 문학박사 원용문, 이일섭 시인, 송길자 시조시인, 서영수 제씨를 비롯한 여주 영릉에서 해마다 갖은 전국시조시 백일장을 통해 등단했던 정수자, 조성기, 안의선, 최중태 시인들과 더불어 한묶음의 여주문학을 점철케 되니 감회가 깊다.

……〈서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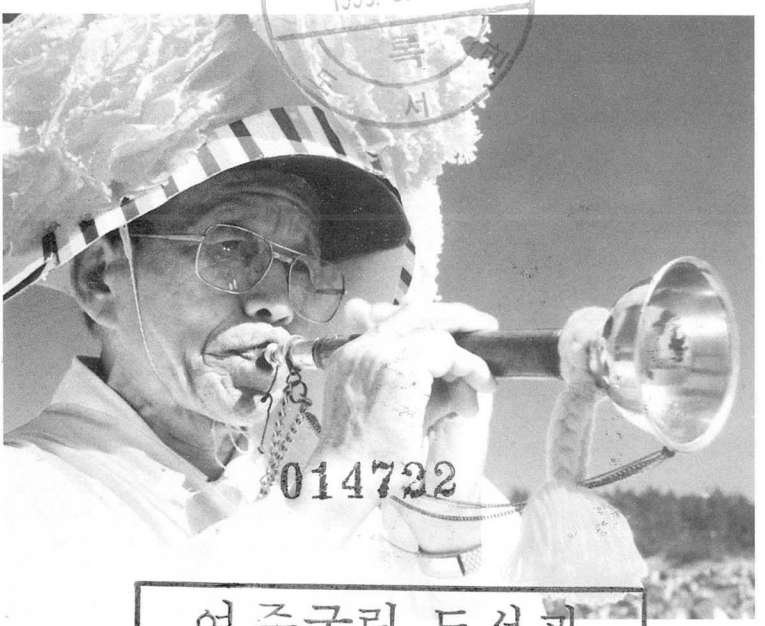
표지 : 효종대왕 재실 팔대총 팔각불발기창

911.58
여742

영릉촌

문학동인회 편

여주군립도서관
등
1999. 8. 26
록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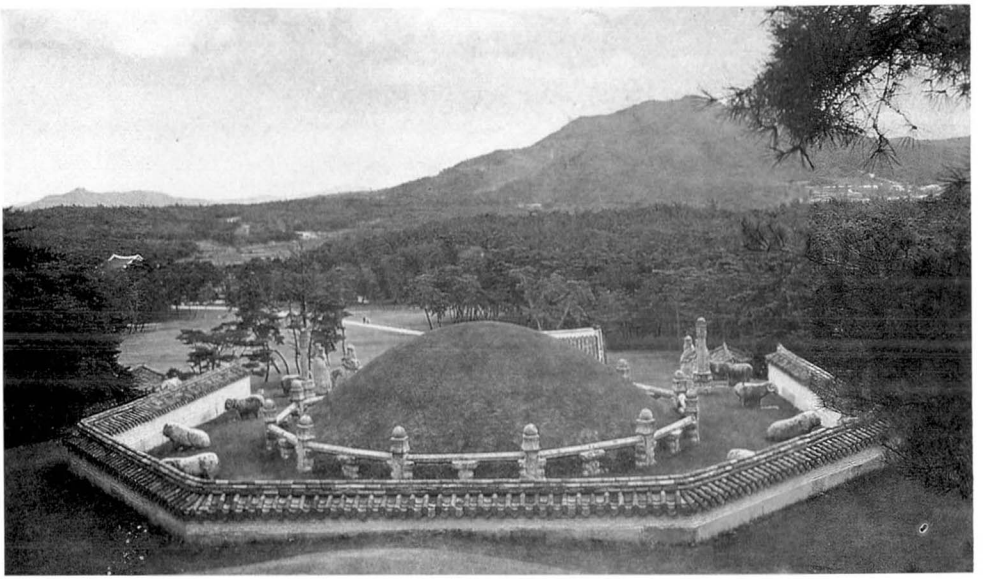


014722

여주군립 도서관
장서 제 호
년 월 일
여주군청 사회복지과기증

14722

여주문화원



조선왕조 제 4대 세종대왕 영릉(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칭성산내)

청자수병

시인
구 자 운

아련히 번져 내려
구슬을 이루었네
버래들 살며시
풀포기를 헤치듯
어머니의 젖빛
아롱진 이 수병으로
이윽고 이르렀네.

눈물인들
또 머흐는 하늘의 구름인들
오롯한 이 자리
어이 따를손가
서려서 슴슴히
희맑게 엉긴 것이랑
여민 입
은은히 구을른 부푸름이랑
궁글르는 바다의
둥긋이 웃음지은 달이랗거니
아롱아롱
묽게 무늬지어 어우러진 운학
엷고 아스라 하여라
있음이여!
오, 저윽이 죽음과 이웃하여
꽃 다음으로 애설프레 시름을
어루만지어라

오늘 ㅣ
뉘 사랑 이렇듯 아늑하리야?
꽃잎이 팔랑거려
손으로 새는 달빛을 주우려는듯
나는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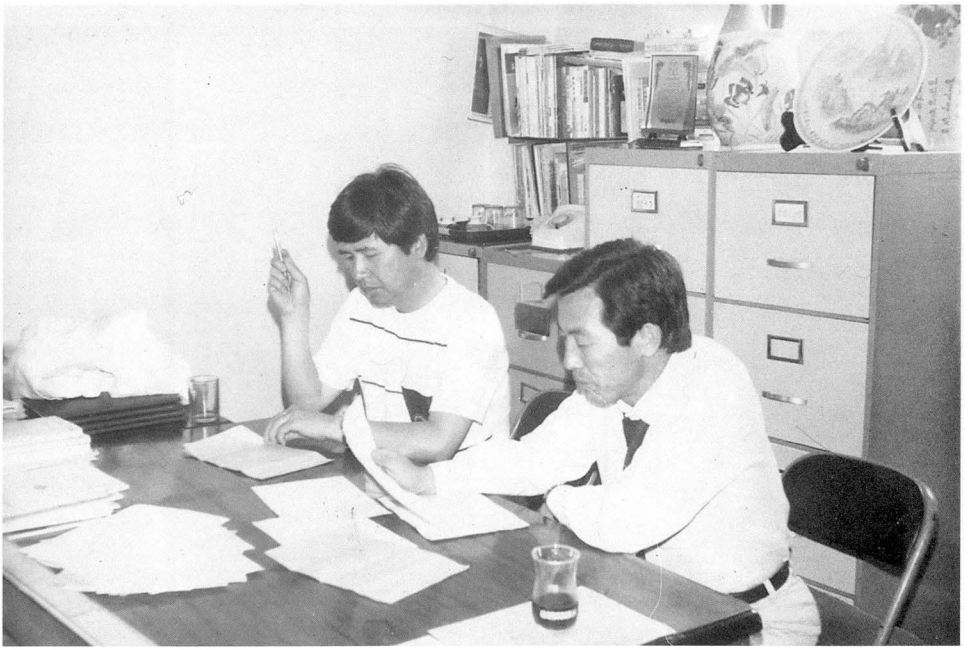
오, 수병이여!
나의 목마름을 다스려
어릿광대
바람도 선선이 오는데
안타까움이야
호젓이 우로에 젖는양
가슴에 번져내려
아렴풋 옥을 이루었네.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 고향(묘소는 대신고 인근산)

1970년 세종문화큰잔치 일환으로 열린 시화전에 초대된 내빈들이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1987년 시조시 백일장을 마치고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심사위원장 리태극박사(왼쪽 두번째)

1970년 세종문화큰잔치 시화전(여광기술학원)



시조시 백일장 작품을 심사하고 있는 정완영, 한춘섭 시조시인

1987년 전국 시조시 백일장을 끝낸후 심사위원들과 내빈들

1987년 전국 시조시 백일장 입상자들(앞줄)과 리태극박사(뒷줄 가운데)

전국 시조시 백일장을 마치고 참가자들과 내빈들

전국 시조시 백일장 입상자를 발표하고 있는 안금식 여주문화원장

1987년 전국 시조시 백일장 시제 앞에서

안금식 여주문화원장이 전국 시조시인들을 여주로 초청하여
여강세미나를 신륵사 구룡루에서 (1986. 8. 2)

전국 시조시인 여강세미나에서 기념품을 증정하는 옥천도예 오수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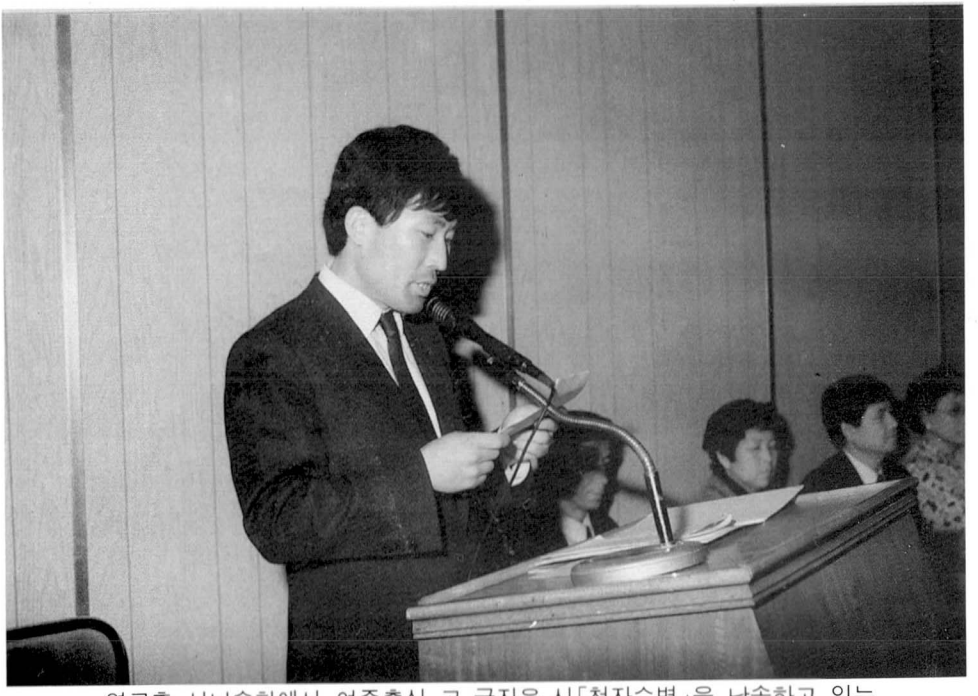
전국 시조시인 여강세미나 「시조문학의 밤」에서 여주출신 송길자 시조시인의 주제발표

제 1회 육당시조문학상 시상식을 마치고(1985. 프레스센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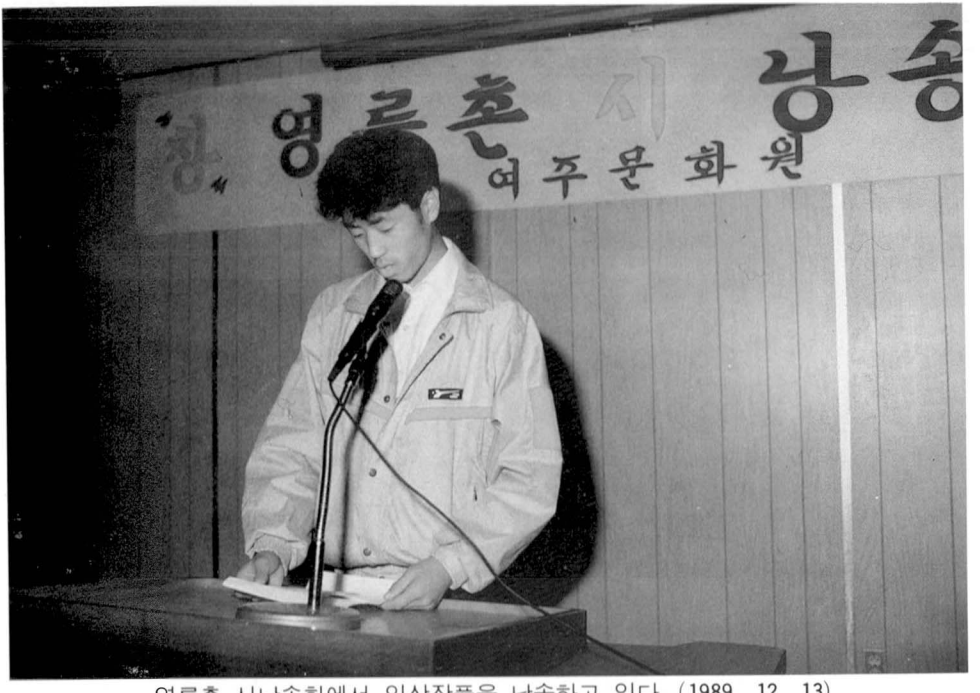
청소년문화강좌를 마치고, 왼쪽부터 박광식이사장, 이일섭시인, 한춘섭시조시인, 중국연변 부녀잡지 김세영, 중국연변 天池문학사주필 리상각, 윤해규 을지출판공사사장, 유성규박사, 안금식원장, 정용우부원장, 최정희민초시회대표(1989. 12. 13)

영릉촌 시낭송회와 청소년문화강좌에 참석한 대신고교,
점동종합고 학생들과 여러 초청 내빈들

청소년문화강좌에 특별초청된 중국연변 天池문학사주필 리상각시인(왼쪽)과
김광진문예진흥원 자료관장(1989. 12. 13 여주문화예술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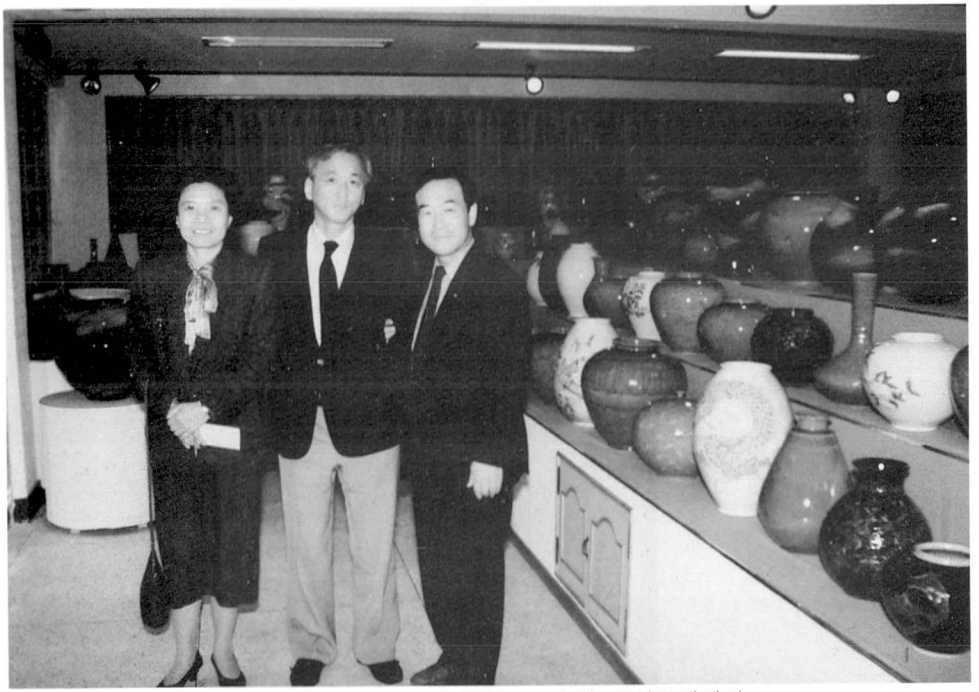
영릉촌 시낭송회에서 여주출신 고 구자운 시「청자수병」을 낭송하고 있는 대신고교 김태영교사(1989. 12. 13)



영릉촌 시낭송회에서 입상작품을 낭송하고 있다. (1989.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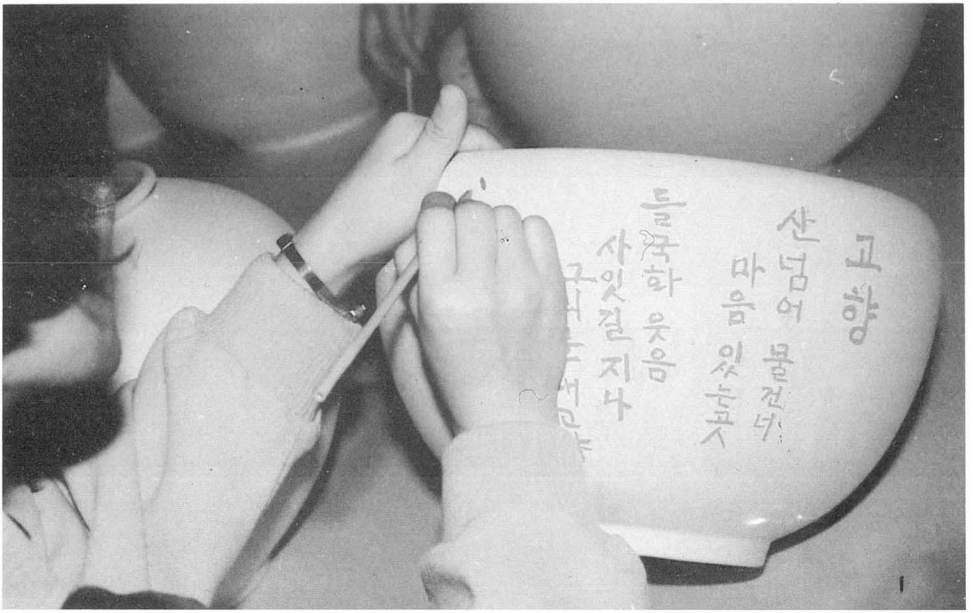
1969년 여주 호수다방에서 이일섭, 최진식, 안금식 등의 주관으로 시화전이 열렸다.

여주 점동면 도리에서 정완영 시조시인을 초청, 여름 청소년시조시강좌(1987)



문학 평론가 서울대 박동규교수와 은성도예에서

일본작가 마끼히로박사(중앙), 안금식문화원장(우측),
김정일(좌측)우체국장(1988. 7. 여주 영릉)



▲ 시인 지망생들의
도예작품준비
(은성도예)
▶

한국시조큰사전 (을지출판공사 발행) 출판기념식에서 왼쪽부터 문화부 최진용과장, 문예진흥원 김광진관장, 강성호, 리태극박사, 이상범시인, 안금식원장 (1985. 3. 세종문화회관)

한국시대사전 출판기념식에 수록시인으로 초청된 안금식원장 (1988. 11. 5 인쇄문화회관)

영 릉 촌

문학동인회 편

여주문화원

서 문

까치라운 나무 끝새 맵찬 바람 스치우는 겨울의 철새들이 이사를 따라 가버리면 멀지않아 여강엔 봄이 오리.

가물대는 아지랑이 강언덕에 피어 오르면 팻자산 기슭 참죽나무 사운사운 새순 돋는 소리 들릴것 같은 감흥이 일고, 여강의 물새들 깃치는 소리 한결 고웁게 메아리질 황려벌, 아직도 저녁거지 여강 언저리엔 옛 역사속에 또렷한 시문의 절창을 아로새긴 옛 시인 백운거사 이규보 월하선유의 낭만이 되살아나는 듯 싶다.

어찌 그뿐이랴. 「여강의 한 굽이 돌아드니 반은 단청이요, 반은 시로다」라고 질펀한 황려의 들녘과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경을 예찬한 목은 이색 선생의 마지막 충의가 거울처럼 흐르는 여강에 마치 하염없이 흡 떠가는 하늘의 잿빛 구름을 담쑥 물잠그는 냥 속절없는 애잔을 되새기듯 백로 한마리가 천천히 나래짓하며 강을 가르는 문향의 고장 여주.

청자수병을 노래한 구자운 시인이 잠든 땅, 예로부터 문향의 고장으로 빛나온 여주에 한춘섭 시조시인과 나는 꽤나 오랜 교분을 갖고 문향의 면모를 되살리고자 여러 방면에서 노

력해 왔으나 아직도 그 길은 멀다.

아무튼 시작이 반이란 말처럼 문학박사 원용문, 이일섭 시인, 송길자 시조시인, 서영수 제씨를 비롯한 여주 영릉에서 해마다 갖은 전국 시조시 백일장을 통해 등단했던 정수자, 조성기, 안의선, 최중태 시인들과 더불어 한묶음의 여주 문학을 점철케 되니 감회가 깊다.

어느때 보다도 향토문화 창달에 지대한 관심을 갖어주시는 홍종대 여주군수님, 안영무 여주경찰서장님, 김병순 여주군 교육장님, 황선명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미급한 점은 독자들께서 「영릉촌 문학동인지」가 더욱 발전해 갈수 있도록 고견으로 이끌어 주시길 고대하면서 서문에 가름코자 한다.

1989년 12월 일

여주문화예술코너에서

호평 안 금 식

차 례

▨ 안금식

자화상 · 24
싸립문 · 26
영동고속 여주행 · 27
삶이란 · 28
봄편지 · 29
꽃바구니 · 30
할미꽃 이야기 · 31
여강 격전사 · 32
비무장지대 · 34
고독의 상 · 35
연포로 가는 길 · 36
토함산에서 · 37
옛정 · 38
만추의 강 · 39
안부 · 40
엽서 · 41
여계수의 한 · 42
동대의 밤 · 44
아빠의 편지 · 45
묘비령 · 46

▨ 원용문

한강에서 · 48
세종대왕 · 50
신륵사에서 · 52
고향마을 · 54
자화상 · 57
달 2 · 58
달 4 · 59
설날 아침 · 60
가슴문 활짝 연다면 · 61
病床日記 · 62
뒤돌아 본 나루터 · 63
권투 · 64
法住寺 · 65
佛國寺 · 66
洛山寺 · 67
碑 · 68

▨ 이일섭

사랑과 평화의 합성 · 70

대지의 정(炅) · 73
통일전망대 · 75
독립기념관 · 77
참나무와 소나무 · 79
신륵사 · 80
노목 전나무 Ⅰ · 82
노목 전나무 Ⅱ · 83
노목 전나무 Ⅲ · 84
노목 전나무 Ⅳ · 85
사랑 · 86
첫눈 나리는 날 · 87
들국화 · 89
문화의 횃불 · 90
낙엽 · 82
갓 · 94
이미 황혼이 찾아온 열차이다 · 95

▨ 한춘섭

물빛 도는 여주 · 98
가을 환상곡 · 99
그믐밤 · 100

休戰線 · 101
봄 하루 · 102
詩畵 한폭 앞에서 · 103
넉넉한 강물 · 104
驪江의 바람소리 · 106
여주의 밤풍경 · 107
중추절 · 108
성묘 가던 길 · 109
아침 강안 · 110
八堂湖 비 된가 · 111
달맞이꽃 · 112
사월 · 113
강촌 · 114

▨ 송길자

驪州 잠자리 · 116

▨ 서영수

꽃하나 다시 · 119

▨ 정수자

여강가에서 · 120

▩ 조성기
고목 · 121
▩ 안의선
영능 소전 · 123
▩ 최중태
푸르름 앞에서 · 124

▩ 발 문 · 125

안 금 식

1938. 5. 30~ 시인. 호는 호평. 필명 안식.
경기도 여주읍 하리 출생. 서울신학대학 수학. 대표시 「만추의 강」 「여강 격전사」 등. 현 영릉촌문학동인회장, 여주문화원 설립, 원장. 경기도정자문위원(현). 경기도 홍보위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 전국 시조백일장(문공부장관상), 각 문학·단체 세미나 주관. 매년 세종문화큰잔치 개최, 세종벽탑문화상 제정. 세종국악당 및 백운문학관 건립 추진. 제28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그가 발굴 고증한 여주 흔암리 「쌍용거줄다리기」가 대통령상을 수상. 문공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1989년 12월 14일 경기도 문화상(문화부문) 수상. 저서로는 「여주 민속놀이」 「여주 전설」이 있다. 시 경향은 애향적, 서정적이며 한연을 주로 2행시로 이루고 있으며 주지적 이미지를 이루고 있다.

자화상

나의 할머니는 소금장수
가늘게 뜬 실눈
시름 겨운 가난 흩날려
눈 꽃처럼 피다가
하얀 박꽃 한송이
한되박 고된 세월 고봉으로 눌러
시장바닥 한 모퉁이
좌판을 깔고
한나절 허기진 배
또 한대를 물려
나의 어머니도
소금을 파는 소금장수
장소금, 김장소금, 겉저리소금
소금 소금 소금을 팔다가
드디어 소금에 저려진 가난한 마음
여울목 긴 물살 소롯별은 너흘춤
할머니별 어머니별 헤아리다
별수 없이 가풍을 이어
소금이 되버린 지금의 나
눈물에 젖은 아득한 세월
얼비쳐온 여강
물끄러미 들여다 보자니

어린 내 아이들
영롱한 눈망울에도
찝찔한 소금끼 쭈르륵
소금은 내 인생
내 인생을 저린
내 인생은 별수 없는 소금이어라.

—한국시대사전—

싸립문

승산마루 고갯길 숨겁게 넘어
산자락 잔디에 머물다가

더딘 걸음 재촉하는 논틀길 따라
시린 계절 헤집어 철새들 날으고

황갈색 길삼치마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넘보이던 저긴

띠살문 문풍지 새로
아슴한 정 삭이던 질화로 불 따습고
사랑방 헛기침에 밤이 깊던 싸립문

거길 못가
염병살이 피난 설움

섬뜩한 차운 바람 까치랍게 스쳐
상실의 아픔이 나뒹구는 빈터

얼른 돌아 가자
쌀지게 오지 양병들
장맛이 그립구나
산여울 봄눈도 아살랑 아살랑
할미 할미 할미야

—한국시대사전

영동고속 여주행

샛바람 차욱하게 감싸인
완차선 연변
숨 헐떡 연거퍼 쉬고
재를 넘는 큐카브 영동고속

한밤을 갈라 꽃 하나 다시 피듯
상념(생각)은 나래짓 하고

영너머
불빛 새던 한촌
지금쯤 단꿈을 꾸리

칠흙처럼 까만 밤
별을 새기고
여주행 영동고속
사랑 얘기도 새긴다.

삶이란

이슬 방울 머문 꽃술
아리운 꿈 이야기 지고
하나
둘
셋
어차피
삶이란 이런걸.

봄 편지

망울진 버들개지 달래며
봄은 지금쯤 어느 오솔길로 오는가

아직도
산여울엔 하얀 눈
신라 천년 옛 도성

오늘도
막새기와 빗기는 햇살
아지랭이 꽃소식이 눈에 어린다.

경주에서—

—한국시대사전,

꽃바구니

청미천 건너 오갑산 기슭
우뢰실 살던 내 누이

용구새 틀어 올린 오막살이
호롱불 일렁이는 행복스러움.

동구밖 까투리 홰치는 소리
연거푸 산메아리 지던 봄날

외산길로 꽃 따러 가더니만
빈 가지에 바구니만 덩실

아직도 소식 없으니
꽃 길은 너무 머네.

—한국시대사전

할미꽃 이야기

물수제비 냅다치는 갈매기 나래 타고
파도의 물결 따라 소롯별은 너흘춤

꽃 소식이 성큼 오는 남녘 아득히
날아간 강남 제비 마중 나온 할미꽃

84. 3. 24,
항도 부산에서
해방되던 해 나의 부친이 타계한 곳.

여강 격전사

천년을 그윽하게 구비친 여강
청동새 목 터진 비명에 으깨이고

말발굽 흙먼지 휩뿌리는 하늘
도사린 요란 맴돌다 또아리 치니

송아지 뜯던 강언덕 여린풀
향수는 어쩐담

강건너 팔대숲
무참한 역사 빼문
낙서처럼 그려논 격발명령 5분전

펄럭이는 기폭 아래
어머님 앙가슴을 겨냥한 채
관측호에 엎드려 부릅뜬 눈초리한
아직도
애띤 적병아!

어둠의 자락 깔린 계곡마다
뜨거운 총열 통한이 매복한 격전지

아우성 치는 포성 두귀를 감싸오면
그리운 고향꿈 박꽃처럼 피어나
칡넝쿨에 달리 되어 딩굴고

가슴 아린 넋 뿌림
피묻은 탄띠 눈부신 섬광일다

조개늪 양섬벌 북성산 턱마리가
무대막간 아닌 시한에서
엘엠므지 방아틀이
아— 핏물강 소용돌이 뇌수 하우침

산새 날아간 밭이랑 너머
사직골 푸서리서
지새울던 부상병은
시방 조국의 얼이다.

—한국시대사전—

비무장지대

멸렬한 청동새
혈맥만 솟구쳐

포성 으깨여
마파람은 여울지고

스산한 달빛
하염없이 부서지는 계곡

옛보다 더 그리운
고향노래 부르다가

화염 방사기 불꽃 어린
내 강산 지키던
늠름한 용사들 머무른 지대

야생화는 꿈을 까실러
고향 하늘 솔바람
꽃씨를 뿌린다.

83. 5. 29

—한국시대사전·

고독의 상

옷고름 자락에 이는 바람
설레이는 그리움 보듬을 제
고독의 상은 아득히 여울져
눈물의 강으로 흐르고

보드라운 버들개지
신비스런 숨결로

아스라한 옛 이야긴 잠덧 겨워
연실
따슨 고요에 지던
봄의 꿈빛이었다.

1972. 5. 4

연포로 가는 길

아살랑하게 갸웃는 햇살
일렁이는 바다

산자락 휘덮은 꽃바람
감싸임 따라

물보라 휘접고
얼청되는 파도 넘어

얼컥
토해낸 물이랑
솔숲새 빤한 길

갸뭇한 추억은
새금파리 깨지는 시샘

물길로 또아리친
꽃구름 쾌활히 스러진 자리

해사한 바람결에
능구렁이 잉잉 울다.

토함산에서

아스므라 한데서 솔새바람 일어와
옷깃 여미는 산길
고향에서 아는 이들 예서 만나니
반겨 웃는 실눈 웃음 정이 넘친다

1982. 12. 27.

옛 정

어느 가을날밤
귀뚜리 울음을 듣다가
얼핏
잃어버린 추억을 줍고
홉 떠간
벗님의 옛정을 걱정했다.

—청수를 그리며
1969. 8. 29.

만추의 강

높푸름이 가득차
끝가물은 하늘

들국의 내음으로
흐르는 구비
눈길 아득한 그리움

저물어 황홀로 핀 고운 노을
피빛으로 곤두박질한 능선 너머

흩날려 애분한 꽃잎 따라
달래이던 애잔
시나브로 떠난 강안이여.

—한국시대사전—

안 부

비갯머리에 아리움을 남기고
홉 떠간 이여
시방도
노냥 꽃망울 다사리는
행복이느뇨

1973. 6. 7

엽 서

사과빛 고요로
물들인 노을
바라보고 있자니

갈대꽃 핀
수여선 협괴 따라
떠나간 그리움

오늘도
나의 그리메
나의 로비아

못잊어 예까지 왔다가
바보가 되어
그냥
돌아 섭니다.

68. 6. 29

—한국시대사전—

여계수의 한

아득한 전설이 이울어
노송 넙수그러진 산구비

따숩게 아지랭이 피던 봄날
사반수골 언덕에서 눈겁어 보이던
애숩한 여계수.

북성산 원심이골 깊은 숲
진한 수액이 터져
동녘으로 천년을 흐르는 샘이
구구곡천 사연도 많다

모래알 배집고 삐삐기
도톰히 보프러
쫄룩이도 즐겁게 우짖어
그윽한 풍정에 선인도
외로움 달랬다더니

깎아지른 산벼랑
으시시한 부엉이 울음
칡 넝쿨에 물려 멎던
깊은 밤마다

가히 없는 여혼의
빨래 토닥이는 소리

고요 지핀 물살 위에
달이 되어 딩굴더니만

여계수의 한은
아직도
강물에 흩어질줄 모르네…

1978. 3. 18

동대의 밤

봉미산 아늑한 골
연등 아롱이는 신륵사 동대

고운 물구비에 감싸인 길숲
노냥 자애로만 울리어라

성불하는 세종대왕 외가 동네
원찰의 풍성소리.

72. 5.

—한국시대사전

아빠의 편지

소롯별 이야기로
깊던 밤이거든
로비, 은비, 윤비야

겨운 잠덧
달래어 준
젖꼭지
싸움일랑
포스근한 할머님
품안에 묻고
어진 따스움에 감싸여
투정이 멎던
시절이거든
꿈으로만 흐르는 실개천
까치라운 아리움 스치어도
연실 꽃처럼 피어난
그윽한 삶을 엮어 주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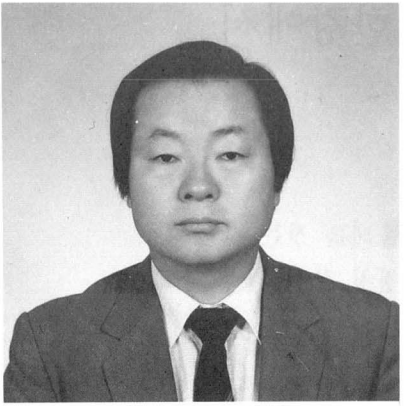
묘비령

팔깍지 베고 양섬벌에 누워
소롯별 헤아리며

오직
조국의 해방을 기원하던
영원히 여주를 사랑한 의사

꿈꾸듯
오늘도 황려 고을에 잠이 들다.

84. 1. 23
—초대 여주문화원 이사장
고 김윤선묘비 (문안)



원 용 문

○1938년 경기도 여주 강천 출생.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 받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강사 역임.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역임.
○1975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시조당선.
○1985년 시조집 「여름일기」를 출간.
○1987년 8월 1일~5일까지 자유중국 고웅시에서 개최된 제7회 한중작가회의에 참석.
○1988년 7월 25일~8월 3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된 ICF 국제학술회의 참석.
○현재 한국시조학회 총무, 한국시조시인협회 감사, 씨얼문학회 회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한강에서

물레를 잣는 세월
칭칭 감아 얼레 풀고

차마 풀수 없는 억류
못내 참아 아린데

한강은
말문을 거둔 채
고갤 들지 않았다.

천년 바닥에 깔린 잔영
한번은 불이고 싶은

돌아 보면 부질 없는
눈물 어린 숨결이고

눈썹에
차오르는 너울
피고 지는 분양이여.

다만 푸르고 싶고
다만 흐르고 싶은 것

조각난 숱한 어휘
눈으로 씻어 가며

하늘이
내려 앉은 유역
구름 한점 잡힌다.

—여름일기 시조집에서—

세종대왕

아침 해 뜨는 나라
배달 말로 터를 삼고

훈민정음 집을 지어
월인지곡 노래 하신

임께서 뿌린 씨앗은
황금 벌판 거두었네.

반만년 어둠 위에
빛을 뿌려 밝혀낸 이

벙어리로 살던 백성
말문 열어 일깨우신

당신은 어버이어라
만백성의 어버이어라

그 공적 빛난 얼을
무슨 돌로 새기리까

영릉 묘 세종전에
손때 묻은 유품들도

새벽녘 총총한 별로
청사 위에 빛납니다

여주골 십리쯤에
고운 잠을 드셨어도

성지향 순례자의
발길만은 줄을 잇고

청동상 임의 발치에
큰 절을 올립니다.

겨레의 정수리에
생명수를 내리시고

우리말 우리 글을
무궁화로 피우시는

대왕은 천추에 살아
둥근 해로 계십니다.

—여름일기 시조집에서—

신륵사에서

거룩한 뜻 지닌 터에
신륵사는 자리 하고

오가는 중생들의
그 마음 다독여 주고

피안에
넘친 자비는
여주 벌을 이루었다.

누구의 뜻이었을까
다층 석탑
세운 일은
철책도 난간도 닳아
성긴 무늬만 남았는데

합장한
가슴에 닿는
날빛마저 은혜로와라.

이끼 낀 솔바람에
펼쳐지는 남한강물

범선들은 벼랑 아래
연꽃으로 피어 나고

어룡이
꿈틀거리듯
울부짖는 물보라여.

—여름일기 시조집에서 (85년)—

고향 마을

누가 그 이름을
모른다고 하오리까

밤 들자 눈 감으면
옛집 먼저 떠오르고

어버이
반기신 얼굴
보름달로 떠옵니다.

비릿한 갯바람에
아지랭이 꽃 피우면
번개들 가는 길은
봄옷으로 갈아 입고

풀피리
불던 날들의
꿈자락도 펼쳤지요.

여름날 느티나무는
이 마을의 수호신인가

할아버지 이야기에
서늘 바람 일게 하고

좋은 일

궂은 일들을
다 챙겨 두었습니다.

노적가리 쌓인 가을
풍년가에 취해 들면

햅쌀로 지은 밥을
조상님께 먼저 드려

그 뿌리
소중한 것을
이내 알게 되었습니다.

양지 바른 울타리에
참새 노래 따스하고
북천의 외기러기
찬바람만 일구는데

겨울은 허허로워도
풍만함을 느꼈습니다.

고향은 동심의 나라
아득하기 천리 같고

밤 들자 눈 감으면
옛집 먼저 떠오르고

어버이
반기신 얼굴
아침해로 떠오릅니다.

—여름일기 시조집에서

자화상

세월은 뒤에서 밀고 고뉘는 굴레를 씌워
이 눈치 저 눈치 속에 깊게 갈은 이마의 고랑
욕된 삶 그도 모르고 깃발 날리던 어릿광대.

시를 씁네 남을 속여 문자 희롱 죄목 되고
어린 양들 갇힌 우리에 위선의 나팔 불고
앵무새 그나마도 못된 서로워진 노랫가락.

가진 자 못가진 자를 구분 못한 청맹과니
어둔 방 촛불 하나 밝힐 만한 힘도 없는가
허명만 낚시질하러 나룻배를 띄운 사공.

가다듬지 못한 마음 오뉴월 서릿발 되고
목덜미 잡은 이에게 비굴한 웃음 짓는데
옳은 것 옳다 못하는 아픔 새긴 이력서여.

—여름일기 시조집에서—

달 2

아우야 우리 아우야
달님 같은 내 아우야

장마중 가던 날은
동구 밖에 먼저 가고

두견이
목메던 날은
너도 함께 울더니.

아우야
우리 아우야
보리고개 넘던 아우야

호박잎을 삶아 먹고
호박처럼 부황 들어

연시빛 달님을
보고
부황 난다 웃었지.

달 4

여주에서 한 오십리
십리고개 삿갓봉 마을

아버지가 나신 마을
아버지가 늙으신 마을

성황당 지하 대장군도
아들 낳으라 빌어 준다.

포목전, 어물전, 과일상에 대목장 보는 날은
가실땐 지팽이 끌다 달덩이 끌고 오는 마을
동구 앞 늙은 나무는 어린애도 업어 준다.

—한국시조큰사전—

설날 아침

숨돌릴 틈도 없는 열두 고개 또 넘었다
아슬아슬 지난날은 나이테로 묶어두자
가야할 푯말을 보면 안쓰러운 이내 마음

이마는 주름지고 귀밑 머리 희어졌네
지워도 지우지 못할 이 그림을 어찌하랴
새아침 떡국 한 그릇은 그래도 먹어야지

달력을 바꿔다는 고운 손이 시리더냐
송구영신 읽어보는 안경테가 무겁더냐
오만을 벗어 던지고 떠오르는 해를 봐라

가슴문 활짝 연다면

이제는 조용하게 오손도손 살아가자
돌팔매를 하는 사람 최루탄을 던진 사람
그대들 손에 손 잡고 아리랑을 불러보자.

동포여 형제들이여 제 자리로 돌아가자
철마는 기염 토하며 레일 따라 달리는데
우리는 성난 얼굴로 거리 위를 헤맬거냐.

사랑하면 사랑 낳고 미워하면 미움 낳는다
한 걸음씩 물러나면 싸울 일도 웃게 된다
가슴문 활짝 연다면 통일로도 뚫릴거다.

분단 된 아픔 딛고 쌓아올린 경제기적
서울은 세계로 가고 세계는 서울로 왔지
그 날의 감격 안고서 흘러가는 한강물아.

오륜기 만국기가 휘날리던 잠실벌에
너와 나 하나가 되어 강강술래 춤춰보자
둥둥둥 북소리 울리자 백두산까지 울리자.

病床日誌

죄수복 같은 검푸른 옷 황송하게 걸쳐입고
청계천 즐비한 도매상의 실려가는 짐짝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서글퍼진
상품이여.

에베레스트 등산객의 모험보다도 더하다
이승과 저승 사이의 통행증을 받아놓고
생명을 저당잡히는 상행위가 이뤄진다.

전생에 지은 업보가 이다지도 무섭더냐
사지를 허공에 묶고 불침질을 놓아댄다
몽롱한 새벽 안개 속에서 잘려나가는
살점들.

이제는 밥을 굶기는 형벌이 시작됐다
히프를 쑤셔대더니 혈관마저 쑤셔댄다
달아맨 링겔을 보면 떨어지는 참회의
눈물.

병원을 찾는 이들은 모두가 환자만 같다
환자가 환자를 보면 십년지기 만난 것 같다
구세주 재림하신듯 위대해 보이는 사제자들

병실에 누워있으면 그리운게 끈끈한 인정
올 사람 오지 않으면 그렇게도 서럽더라
닫힌 맘 활짝 열고서 바라다 보는 푸른 하늘

되돌아 본 나루터

이 세상 살아갈수록 살맛 났으면 좋으렷다
불혹의 고갤 넘고 知天命의 밭을 갈건만
무서리 내린 가을에 외로 나는 기러기여.

하늘이 점지해 준 보석보다 귀한 목숨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애지중지 하신 부모
세월의 나루터에서 기울어진 해를 본다.

좌로 보아 우로 보아하는 연습조차 못해봤다
방향 감각 모르면서 앞만 보고 거닐었다
효도할 줄 모른 것 아니라 그럴 만한
여백도 없었다.

그나마 지은 농사가 서툰 몸짓하는 옥수수
씨앗이 나뻤는지 토양이 그러한지
재래식 영농법에 기후가 나뻤는지
단맛은 내지 못할망정 쭉정이는 되지 말아라.

육사는 광야에서 목 놓아 노래했고
소월은 영변 약산의 진달래꽃 그렸는데
메아리 메아리 없는 발음법만 눈물겹다.

권 투

사각의 무대 위에
청코너와 홍코너여

미쏘가 다툰다 한들
이 보다 더 치열하랴

현대판 관우 장비가
기개세를 자랑한다

대포를 쏘아댄다
폭탄 세례 퍼붓는다

치고 받고 받고 치고
龍虎가 어울렸다

지옥에 사는 사람도
저를 보면 알 만하다

승전고가 울리면서
새 왕자가 태어났네

챔피언 벨트에다
트로피를 안겨주네

장내를 뒤덮을 듯한
박수 소리가 귀따갑다

法住寺

보은 동쪽 사십 사리 俗世 떠난 산을 찾아
말틋재 열두 굽이를 竹杖 짚고 넘어서면
정이품
벼슬한 나무가
고갤 들어 반겨준다.

저 멀리 기암절벽은 文藏臺라 이름하고
아름드리 소나무 숲은 하늘 마저 가렸는데
낭랑한
독경 소리에
합장하는 순례자여.

그 옛날 義信祖師는 흰 나귀에 장경 싣고
眞表는 상서로운 吉祥草를 심어놓고
크신 뜻
머무르게 할
팔상전도 세웠단다.

大雄寶殿 부처님께 두손 모아 절하옵고
石燈 인 돌사자 앞에서 新羅人의 숨결 듣고
甘露水
한잔을 뜨고
아미타불을 외었다네.

佛國寺

보라색 짙은 안개를 뱉고 미륵는 吐含山
신라 천년 물든 바람이 쏴아하고 불어온다.
가슴 속 깊은 데까지 와 닿는 서라벌의 옛정취

일주문을 들어서도 가는 길은 험하였다
해탈교를 건널 때는 세속 구름 걷혀간다
天王門 문턱을 넘자 사천왕들 호위하네.

法興王의 어머니인 迎帝夫人 발원했나
眞興王은 只召夫人의 왕생극락 빌었단다
文武王 호국의 뜻은 佛國土를 이루었네.

青雲橋 白雲橋는 천상세계 가는 다리
七寶橋 蓮花橋는 서방정토 가는 다리
大雄殿 석가모니불은 사바세계 건져준다.

그 옛날 金大城의 입김 서린 石造物들
아사달 아사녀의 전설어린 無形塔에
多寶塔 둘레를 도는 저녁놀이 붉었다.

洛山寺

뒤로는 설악 영봉 병풍처럼 둘러쳤네
부처님 자비만큼이나 까마득한 동해바다
水天이 맞닿은 곳에 彼岸世界 열려온다

깎아지른 절벽위에 솟아오른 의상대여
그 옛날 임의숨결 파도소리에 묻혀온다.
오욕을 씻어내리는 해조음이 들려온다

紅蓮庵 보타굴은 옛전설을 간직했다
관음보살 현신하여 새 법당을 지었던가
해당화 붉은 꽃들이 수줍은듯 미소짓네
홍예문 원통보전 칠층석탑 둘러보고

신선봉 등성이를 바람타고 올라간다
洛山寺 海水觀音도 치마자락 날려보네

碑

꿈이 굳어 이룬 돌에
스쳐간 것 할퀴어 간 것

저문 나루터에서
사연조차 지운 증언

그나마 남은 이름
석자만 달빛속에 영근다

갈수록 짙은 그리매로
떠나지 않는 그것

그 상, 그 태깔을
뿌리째 옮겨 와서

내 心地 황량한 벌에
새 빗돌 하나 심는다.

—한국시조큰사전

이 일 섭

1938. 4. 19~ 시인, 호는 해암(海岩)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출생, 여주농고, 방송통신대학 국어학과 수학, 학창시절부터 습작, 이루리전, 방공포스타전, 만화전, 시화전, 유화전, 경기도 문인협회 수원 시화전(정자각)
시 「새봄」 새마을 신문 '82. 2. 6 푸른 잔디외 화홍문학 4집. '83 「영릉고을」 새암 창간호 '87 「문화의 횃불」 (12회 세종대왕 숭모제정을 보고) 서울신문 '88. 5. 18 등을 발표하고, 여주문화원 회원, 전 영릉촌 문학동인회장,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종합신문기자, 경기도 문협회원, 수원 공간사랑 추진 시낭송회, 현 문화공보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근무, 모범 공무원 표창, 1988. 10. 9 한글날 542돌 기념 시낭송의 밤, 갓(문공소식, 1989. 7월호) 통일전망대(문공소식 1989. 11월호), 제592돌 세종대왕 숭모제전 문화의 횃불(가는정 오는정 체신부, 1989. 9호), 문화의 횃불(1989. 10. 12자) 원주 문화방송.

사랑과 평화의 함성

[1]

88서울 올림픽 날
높고 맑게 푸른 가을 하늘이여
그 성화의 횃불
그 감격의 눈물
그 율동의 물결
온 지구의 일백육십개국 국기의 깃발들이
서울 하늘에서 나부낀다.
온 인류 50억 인구의 대잔치다.

동서문화가 화합하며
전진하는 오늘
하늘에서 땅에서
또 하나의 태양이 불타 오른다.

하늘이여!
사랑의 물결
평화의 합성
손과 손이 어우러진 화합의 물결
전진을 다짐하는 순간이여.

2

하늘이여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어 사랑이 충만한
지구촌이 되게 하소서

산 넘고 바다 건너
사상의 벽을 넘었다.
색깔이 다른 인류가
어우러져 한마당 문화의 대잔치다.

젊은이들이여!
갈고 닦은 기량을 겨누는 힘
그 힘 화합의 길로
사랑이 넘친 평화의 탑을 쌓았다.

하늘이여
빈곤과 혼란이 없는
가진 자 없는 자 없이
평등하게 하소서
참으로 자유를 평화롭게 하소서.

3

또 하나의 태양인
이 성화(聖火)에
싸움도 질투도 시기도 저주도
모두 불살라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소서
내 조국이여 위대하여라
또 하나의 정부에도
거기 사랑이 넘쳐라
평화의 푸른 종이 울려라.

그리하여
조국 통일을 앞당겨라
비둘기 높이 날아
ㄱㄴㄷ나래 온 누리에
힘차게 웅비한다.

화합의 길
평화의 나라로
번영의 대국으로 전진하여
영원토록 무궁하리.

대지의 경(炅)

내 겨레의 얼이 깃든 대지
오랜 광음동안
너를 두고 떠난 사람
그 몇이더냐
무언의 실천자여
그 정신 거룩하여라

종달이 피나게 울어에는
푸른 창공 용마루가 있다
만물의 생과 사
대지는 말하리라
세월은 흘러도
대지는 살아 있다

내일의 꿈 산실이여
너를 떠나선 살 수 없으리
푸른 흙 그 내음
거기 내 조국이여
온누리에 사랑이 넘친 화합의 길
앞으로 나아가자

대지는 부른다
고결한 정신 청렴한 흐름은
창조 지혜의 샘물

오라! 허영을 박차고
푸른 흙 내음이 흐르는 곳
복지의 꿈 그 대지가 부른다

내 조국에
뻐꾹새 울음소리
아침 성좌 이슬 밟으며
종달이 드높이 날아 노래하는
한 민족 문화 꽃핀
화합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오라

오라! 여기에
대지는 또 부른다
자유의 깃발이 펄럭이는 곳
창조의 물줄기 힘차게
문화 횃불을 온누리에 밝힌
그 비둘기 더 높이 날아
사랑이 넘친 그 웅비 영원하리

통일전망대

저 금강산이
아물 아물 일만이천봉
낙타봉이 통일로
달리려고 울먹이고 있다.

금강산 혈맥에서
내뿜는 뜨거운 피
배달의 샘물

해금강 해맑은 우리의 물
영원한 젖줄
선열의 넋을 토하는
함성이 들리는가.

철조망 허리를 감아
뼈아픈 눈물
사무친 한이여

저 351고지
포알 박힌
처절한 그 순간
아직도 탄흔이 숨쉬며

그날의 비명도
우리의 형제

그때
얼마나 많은 군번이 스러져 갔는가

총성은 잠들고
무성한 잡초, 갈대가
흐느끼고 있다.

브이자형 금 모래벌
반으로 갈랐구나
총뿌리 마주하고
아! 통일을 구원하는
아들 딸

그 해변가
모래알
눈을 부라리며
인적도 없이
쓸쓸한 긴장만이
흘러 흘러

새파란 하늘에
제비 한마리 정찰인양
너와 나를 비웃듯
자유로히 넘나드네.

—문공소식 1989. 11월 통권8호

독립기념관

흑성산 드높은 기슭에
힘찬 혈맥이 약동하는
겨레의 성전

새 태양이 찬연히 깃드노니
옛 기수의 횃불을 드높이 들어
누리를 해맑게 밝히네

말과 글은
암흑에서
숨을 멈추었을 때

그날 그때
가슴엔 피의 훈장
산하의 맥박을 약동시킨
그 위대한 얼이여
그 얼마나 서럽도록
독립의 한이 서리었으면
가슴 가슴속에
응어리진 그피

총뿌리 앞에
만세소리로 폭발하였나

순국 열사여

피흘린 그 흐름이
이젠 한맥 한뜻으로
여명의 새 날을 새롭게 밝히어
여기 고요히 잠드셨네

때늦은 뜨거운 기쁨
그 웅장한 지표의 기백
그 뉘에게 굴함 있으랴

그 청운의 나래
누리에 고고히 웅비하니
장엄한 서광이여

—한국시대사전
독립기념관월간지

참나무와 소나무

그곳
그 자리에서
긴 겨울동안 눈을 감고
새 봄의 노래소리 귀 기울이며
서로 정답게 마주 서서
웃고 웃으며 대화가 흐르더니

비오는 날엔 알몸으로
속삭이던 너
눈오는 날엔 하얀 분으로
제 자랑만 하더니

시공의 바퀴가 돌아갈수록
태양을 향하여
기린처럼 긴 목을 빼여 들고
사나운 바람이 스치우면
고옵던 마음씨 어디 두고
성난 참나무는
푸른 깃발을 휘두르나
소나무는 바늘같은 잎으로
서로 아우성 치고 치며

뿌리는 서로 어우러져
한없이 뻗어가네. —한국시대사전—

신륵사

남한강 기슭
봉미산 아늑한 품에
옛 스님의 얼이
빛났으니

추객은
옛 시공에 젖어
만추의 시풍
우수수 낙엽으로
읊조린다.

목은의 호흡이
햇빛에 바랜 음율로
은은히 흐르니

세월 자락이
거울같은 물결을 빗기어
시풍은 영원속으로

벽탑은
옛 얼이 선하게 서리어
그 섬세하고 찬란한 빛 흐르네

여울저 굽이친

맑고 밝은 여강에
나를 흠뻑 잠겨 흐르네.

—한국시대사전, 재경 여주향우회—

노목 전나무 I

하늘로
날아갈듯 하던
전나무가 죽어 간다

오랜 연륜을 자랑하던
푸르른 흐름이여
탐이 허물어진다
삶이 무너져 나린다

쓰리운 가슴을 안고 영혼이 있는 곳으로
하나 둘씩 날아서 간다

눈물이 보인다
노목 전나무는
밤낮없이
속으로만 눈물을 흘린다
눈물 자욱이 보인다

그 눈물 자욱 자욱엔
독버섯이 숨을 쉬고 있다

이끼가 파랗게 돋아
죽엄을 위장한다

노목 전나무Ⅱ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일까
아픔에 눈물을 흘리는데
딱다구리는
날카로운 부리로
영 잠들어가는 심장부
살결을 쪼아 피를 낸다
보금자리를 만들어
꿈이 흐르고
벌레를 잡아 먹는다

산새들도 살려는양 죽은 가지를 피한다
푸른 가지에서 더 홍겹게 읊조린다

눈이 온다
눈 감은 하늘에서 하얀 목화송이로
썩어가는 팔뚝을 가리운다
나무가지마다
하얀 꽃송이
꽃이 겨울에 핀다

노목 전나무Ⅲ

비가 온다
하늘 허공에서 실타래가
풀리더니 옷감을 짜는 양
하얀 명주실을 짠다
모시를 짠다

비가 온다
구름이 나려 온다
눈물이 쏟아진다
빗방울은 사정없이
아픈 가슴을 내려친다
사려른 그 목숨
인고의 덩어리가 눈물을 먹는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온다.
백발 할미 팔인양
늙은 나무가지는 힘없이 떨린다
죽어가는 나무가지는 안간힘을 쓴다
살아있는 나무가지는 도전한다

노목 전나무Ⅳ

바람이 분다
울고 있는 팔뚝에
더욱 세차게 분다

심술난 칼바람은 그 팔뚝을 우두둑
힘없이 악 소리치며 땅으로 가누나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날까지
그 모진 목숨

그 푸른 나무가지는
햇빛을 마음껏 마신다

나병환자처럼
신체의 반은 죽어가면서
죽은 몸을 부여잡고
살려고 살려고
하늘에 울부짖으며
매일 기도한다
또 해맑은 태양이 뜬
벅찬 아침이다.

—한국시대사전—

사 랑

나홀로 울먹이던 정
구름도 바람따라
어데론가 끝없이 떠나는데
네 홀로 한조각 떠나는데

혹시나
부르는 소리
그 소리 바람 바람
바람 소리만 들리는데

저 멀리 들리는
그대 흐르는 여운인가
기다린 마음

고요한 숲속
새소리
바람소리만
산울림에
그대 구름같이 머무는가
꿈찾아 이글거리는 마음

—한국시대사전

첫눈 나리는 날

새벽 여명이 밝기전에
어둠을 박차고 창문을 여니
하얀 마음같이 흰 눈 웃음이 소복히 흐른다.

보도위에 흰 눈 드리운
은빛 숲 속
그 길목으로
나는 처음 자취를 남기었다.

세종 주차장엔
새 하얀 은빛
은어떼들이 파닥인다.

이 산 저 산
묵묵히 흰 눈송이
하늘의 세례를 받고
무어라 함성을 토하는
깃발인가

아마도 온 누리가 싸움없는
흰 눈 같은 사랑이
가득히 넘치라고
무언으로 무언으로
새 하얗게 토하는
하늘의 함성인 것 같다.

세종대왕 동상엔
밤새 흰 감관으로
훈민정음 책장에
새 하얀 눈송이
축복을 받아 드시고
어진 백성에
횃불을 밝히는 듯
그도 햇빛에 반짝인다

들국화

산자락 모퉁이에
네홀로 앉아
길 떠난
님을 기다리는
사랑이여

긴 여름날
그리움의 눈물송이
울먹이던
가슴을 열고

우울한 가슴이
밤을 하얗게 지새운
쓸쓸한
그대는
가을 여인

문화의 횃불

칭성산 중턱
노송 드리운
금빛 찬연한 햇살

오늘
거룩한 제592돌 숭모제전
겨레의 성군
세종대왕 오신날

여기
흠모하는 현무의 분향
황금벌 드높이 날아

가야금 열두줄에
여민락 가락은 은은히 울려
선정(善政)으로 흐르리

황금같이 빛나던 그 시절
평화의 흐름
오늘에 이어 흐르리

우리의 정음은
온누리 굽어 살피는 글
으뜸이어라

거룩하여라
용비어천가의 노래소리

ㄱㄴㄷ의 힘
우리 혈맥에 약동하는 샘물
하늘높이 비둘기 파도치는데
뿌리 내리시어라
지구의 땅끝까지

ㅓㅗㅏ의 나래
온누리 웅비의 비상
그 함성의 울림이여
힘차게 힘차게
울리어 퍼지어라
위대한 성군의 정음(正音)이여

낙 엽

태양에 도전하고
대지를 보살피던
너

어제 파란 깃발을
자랑하던
너

이제
선자(善者)의 체념(諦念)처럼
묵묵히 불타 오르며
하나, 둘, 셋
시공(時空)에 밀리어……
작별하는 순간

회귀(回歸)의 여정(旅程)길에 올라
인간들은 동물들은
양지를 찾는
가을을 몰고온
너

대자연의 섭리
조화에 순응하는
너

모체를 바라 보면서
윤회(輪廻)를 기다리는
너

나는 유한(有限)의
여정길을
걷고 있는가! (造化)

갓

상투에
은동곳 꼽아
망건(網巾) 졸라 매고
갓 감투 쓸때
긴 담뱃대는
전설을 엮어오던 삶

조상의 얼이 담겨
양반 나들이 따라가는
도포 자락에
감투는

여봐라
게 아무도 없느냐
세상을 호령하던
개화 바람 단발령에
밀려난 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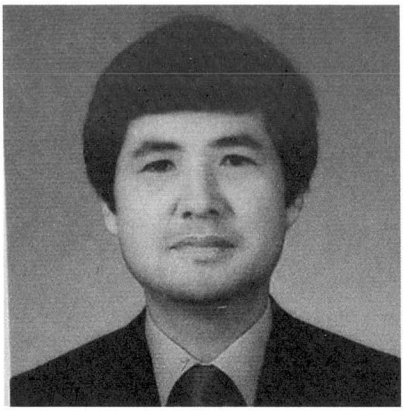
그래도 엊그제 같던 시절이
그립기도 하시겠지.

—문공소식, 1989. 7

이미 황혼이 찾아온 열차이다

내가
꼭 타야만 할 열차가
이미 일분전에 떠났다
기적이 기다리다
그냥 울고 떠났다
플랫홈에서 무척이나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 열차는
하루에 한번밖에 없는 열차
내일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렇다
이미 모든것이 떠난후
다만 하루를 지난후에 알았다
텅빈 마음으로 걸어왔고
걸어가는 운명이기에
내 인생을 다시 출발할 시기는
이미 황혼이 찾아온 열차이다

여 백



한 춘 섭

1941년 경기도 출생. 시조시인, 국문학자. 호 암천(岩泉).
국제대학 국문학과에 이어(65년) 단국대학원 국문학과 졸업(75년 문학석사) 「시조문학」지에 '아침강안'으로 3회 추천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시조시 창작 및 연구에 전념하였고, 그 후로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조시인협회, 국제펜클럽의 회원 및 이사로 활동이 컸고, 국어국문학회와 한국시조학회의 창립이사(현재)이며, 육당 최남선 시조시 문학상 상임운영위원(현), 시조전문계간지인 「시조생활」 편집장(현)으로 시조시 계승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고 특히, 그의 역저라 할수 있는 「한국시조큰사전(2천여쪽)」과 「고시조 해설」 「영역 시조시선」 등은 한국문학사의 큰 업적을 남긴 저서며, 현재 민족시인 시조시 연구 논문 발표가 30여 편을 넘고 있음. 대유공전대 출강, 풍생고교 주임교사(현)임.

물빛 도는 여주

고샷터 조요로운
시운도는 앞뒤 산아
발길 오간 조상찍
물빛 어린 신륵사여
여주는
영릉, 여주는
언제 가도 그림일레

뒷마루 앉아봐도
남한강 유유니라
석탑에 서린 전설
영월루에 달빛 놀고
모랫벌
날으는 물새
곱디 고운 정일레

가을 환상곡

모다 버리기 싫은 노오란 은행잎들
귀똘 그 소리가 비스듬히 넘어진 채로
삼만리 바람에 날려 풍경도를 채색하고

나에게 오려 부친 정갈한 안부 묻고
어제밤 부엉이 소리 불면증을 안겨주어
구만리 높다란 구름 안개비로 안기네

그믐밤

생각은 구만리로
훨—훨 아득하다

겨울밤 동천(冬天)가에
한 해 또 당겨지면

조요한
자정 놀레에
순명(純命) 따라 서느니라

休戰線

뒷산 뻐꾸기로
이 맘처럼 가던 날
피울음 언저리로
봄 긴날 가던 것을
바람은
못다핀 설화(雪花)
갈대 욱은 휴전선.

봄 하루

빛고운 치맛자락
아른대는 보리이랑

신발축 묻어오는
꽃멍울의 들길 가다

봄하루
개나리 울안
가슴 여는 황사등(黃紗燈)

詩畵 한폭 앞에서

벙그는 목련 그림
마음 눈빛
밝혀 든다

얼마나 기두리던
수정알 같던 시심(詩心)

화선지
묵향 괸 틈으로
삼천계(三千界)가 엿보인다

슬픔이나 기쁜 일이
종이 앞뒤
그 차이

들려주는 하룻날 말씨
너를 보다 잠이 든다.

가냘픈
손끝에 얼려
만개(滿開) 앞둔 봉오리 속.

넉넉한 강물

모두어 한폭 그림
안개 두른 채묵(彩墨)인 채
가장 조용한 숲
불 지핀 도예촌락
넉넉한
슬기의 바람
속삭이며 살아 가고.

별빛 사랑 물빛 사랑
연록 무늬 땅이고녀
흰모래 손잡고는 촛불 켠 송이송이
신록사
펄럭인 강물
목은(牧隱) 시선(詩仙)의 도포자락

북성(北城)뫼 능허리에
세종 성군 우러르고
겨레의 바람 녹여 어우른 흙내음이
솔 향내
싱싱한 빛살
백운(白雲) 시걸(詩傑) 손짓같네.

어느 길가 야초(野草)인들
석종(石鐘)소리 잊을꺼며,

눈 감은 먼 청천(靑天)도
검은 들 고향 같아
사랑의
세순 뿌리로
여주는 복된 땅.

驪江의 바람소리

세월의 강물 속이
　달빛으로 손을 잡아

저 너른 모래위에
　목어(木魚)치는 소리 있어

노을이
　쉬어서 가는
　풍경마저 고요터니.

꿈인저 가까이에
　품고 사는 가슴끼리

옛 마을 강마을이
　벽탑 솟게 하여 둔 채

가람이
　위아래 따라
　출렁이고 반짝이고.

여주의 밤풍경

달맞이 강바람으로 나무가지 크고 지고
문득, 그리운 이 정(情)일레 밤의 강가
별자리 물속 밑바닥 하늘 그리는 나그네.

세월 휘우는 구름, 갈대 연록으로나
잉어 파르르한 십리벌 모랫벌이
이영차 노저어 다닌 파란 여울 파란 별빛.

중추절

부피로 해가 뜨고
둥 넝쿨 잎도 지고

오늘 가윗날이
둥근 둥근 오고 있어

영장산
산 능선 위로
중년 발길 오르느니

성묘 가던 길

오랫만에 찾아뵈온 얼굴 모르는 아버지여,
아내는 불쌍하다며 술잔 붓고 오는 길
아버지, 사십년 길목 해와 달빛 되신가.

죄스런 발길인양 밭이랑 조차 달라졌다
멧새 지저귀는 고향 뒷산 아버지여,
늘 푸른 겨울 잣나무 사이 우뚝 서신 이어라.

아침 강안

가시줄 사이하고 두 기슭 휘— 본다.
북새풍 나린 벌로 놀빛 아림 세월되나,
가없는 실마리따라 뒤척이는 하구(河口)다.

흐리는 신화마냥 애태워 숨지리까,
토라진 동공끼리 상사로 맺히리까
먼 하늘 북강(北江) 썰밀물 해살짓는 밤비다

철새 쉬다가는 초연(硝煙)스민 물이랑이
차라리 차라리 녹쓸어 풍화해도
목메인 여울의 마음 원형 바라 크는 목숨.

—한국시조큰사전—

八堂湖 비 된가

세월따라 사계따라 거푸거푸 인연짓는, 천만 해
지나고야 팔당호 비(碑)문이리.
풍광 좋은 수풀사이 은행나무 골안개, 가지 끝끝
안개 이슬 되어지는,
미지산 계곡 찬물로 여울지고 너울지고, 쾌일산
중허리 단월(丹月) 고을 구름이다가, 평평 허
허로운 양수(兩水) 물굽이로 그 옆 비문이다가

팔당호 너른 수문 더불고 비문(碑文) 남길 나그네.

—한국시조큰사전—

달맞이 꽃

바람은 바람끼리 꽃대궁 부대끼고
나비나래 펴 나릴 아가들의 작은 손짓
흰나래 구만리 고요 너로 하여 밤길 걷고.

기다림의 실뿌리로 인고하는 해빛살
강물 조용히 빗겨 살펴가는 꽃그늘 영혼
설악동 혼혼한 달무리 가슴끼리 그리운가.

—한국시조큰사전—

사 월

봄비로 휘어진 길 오르는 핑크 내음
연록치마 끄을고 종달의 노래 안아
사월이 상긋한 미소 수줍은 이 다가들고.

강변로 휘인대로 비춰들 입술 둘레
쪽빛이 노래인가 고향을 가고픈 날
사월은 잔치날 아침 그리움이 묻어들고.

강 촌

달맞이 강바람으로 나무가 크고 지고
문득 저려 그리운 이 정일레 밤의 강은
사공도 허위대 굽어 하늘 그리는 나그네.

가람 휘우는 철바람 갈대 연록으로 핀가
잉어 여울이 파르르 십리도 더 퍼진가
어영차 반나절 노저어 언덕 오른 성좌 둘레

—한국시조큰사전—

송 길 자

○1942. 3. 18 여주 출생
○여주여고 졸업
○1982「시문학」지를 통해 문단 오름
○한국 문인협회 회원
○한국 여류문인협회 회원
○한국 가톨릭문우회 회원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9－4

驪州잠자리

旺垈里
아늑한 숲도
강머리의 神勒寺도

조금은
흔들리는
등불로나 걸어두고

잠자리
날개깃에도
떠흐르던 南漢江

下里
강마을에는
내가 심은 추억의 숲

달빛에
깔린 시름
혼자라도 밟고 가면

외로움
강물에 닿아
울음마저 추스려……

싸리산

바라보면
北內골은 내려앉고

황토길
야산 넘어
상사 앓던 常이, 敬이
잠자리
아슴한 날개에
불사르던 넋이여.

서 영 수

○1938년 여주읍 창리 출생
○여주국민학교 42회
○여주중, 농업고등학교 6, 8회〈현 동창회장〉
○건국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과
○1961년 詩1회 추천〈현대문학 김용호시인선〉
○1962년 농촌재건운동위원 위촉〈박정희대통령〉
○1970년 한국천주교 꾸르실료 제10차 수료
○1975년한 국천주교 꾸르실료 사무국 총무부장
○1980년 천주교 창동교회 총회장 5년 역임
○1981년 시카고 교민 방문
　　나이아가라대학 세계 23개국 신앙세미나 참석
○주요 일간지 詩발표 다수

꽃 하나 다시

서글픈 뺨은 이슬 마른 꽃잎
나
그대가
조용히 그리워
주소마저 지워진 계절
어찌하여 옛보다 더 그리운가
때로는 잊고자 낯선 소녀와 마주서
너 어디살지 몇살이지 물어보기도 한다.
나
길목에
멍청히 멈추며
내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모조리 미워한 내 눈동자를
그들의 손으로 뽑아 구두 발밑에
짓밟는다면 얼마나 통쾌한 목마의 뜀일까.
나
눈멀어
그대 다시 볼
눈알을 두개 만들고
짝잃은 사슴처럼 한평생을
그대 멀리 떠난곳을 바라다 보리
그대 미소진 얼굴이 꿈에 오면
나
사랑에
주린 아가인양
외로운 꿈에서 깨어나
땅거미 살아나는 침묵의 기도
언제나 눈멀어 그리움이 차돌 된채
진정 나의 봄에 꽃하나 다시 피어나라고

정 수 자

여강가에서

조각난 꿈을 끌고 찾아간 강가에는
기다림에 물든 머리 치렁치렁 놀인 수양
오가는 시선을 채어 그네 뛰고 있었네

오월 강바람은 올올 고운 참빛살
종일토록 다듬어 윤흐르는 자락마다
밤이면 물살을 길어 은어떼를 키우느니

천만비늘 수면위 그 하얀 속살따라
눈물 닦는 햇살로 이 남루 헹궈가며
여강은 수양 더불고, 흘러 나도 푸르네.

—제 8회 세종대왕숭모제전
전국 한글 시조시 백일장 장원 당선작

조 성 기

고 목

송피의 근골사이로
가는 정맥이 흐른다

무명의 손때끝에
한 시대가 젖어있는

천고를 삭혀온 갈증
징소리는 들리고

낙화 스쳐가던
술잔을 비워 나가고

옹골진 가슴속에
고여드는 돌의 울음

바람도 그를 흔드는
뼛마디로 사위고

여기 영원과 회귀로
통하는 길목에서

산새 전언하는
설움마저 껴안고

한번쯤 눈을 감으면
하늘이 열린다

—제10회 세종대왕 숭모제전 기념
전국 시조시백일장 장원작품
사단법인 여주문화원 주관—

안 의 선

영능소견

성좌처럼 저민 사랑 어느결에 머무는가
어슴프레 등피처럼 흔들리는 황혼녘에 빛
빛나는 고전 하늘이 목이 쉬어 남아있다.

캄캄한 어둠에서 시간이 깨어 운다
부시시 눈을 뜨는 歷史의 사금파리
한점의 매운 바람에 혼자 떨고 있구나

아득한 그 음성이 가락되어 흘러 돈다.
산허리 솔바람이 「나라ㅅ말씀」 읽고 있다.
어둡고 긴 공간만이 넘나들던 상대여, 공간

못같이 박힌 슬픔 도려내는 월인천강지곡
그 왕조 목소리가 깊이 잠든 이 골짝을
눈멀은 밤바람만이 깨어 울다 사라지고—

붓끝은 닳고 닳아 沈默으로 잠들었다
創造로만 얼룩지는 大王님 일대기를
嶺마루골 물소리만 노래하고 있구나

최 중 태

푸르름 앞에서

피가 도는가 이제 그 환한 복사꽃
그냥 흘러가는 듯한 한줄기 바람에도
아! 가슴 두근거리는 사랑의 밀어같은

서러운 것은 차라리 아름다운 것보다 아름답다
소멸해 가는 것에 대한 모든 안타까움으로
햇볕도 목이 타는가 저 넓은 모래밭에는

어쩌다 잘못 쏟아진 한줄기 은하던가
아스름히 비칠듯 말듯 닿아 오는 저 푸름도
서럽고 가난한 이엔 눈물보다 시리다

여주는, 머지않아

한 춘 섭
〈시조시인 · 국문학자〉

예로부터 여주는 분명, 사람 살기가 복스러운 마을이었다. 수없이 많은 선대로부터 고운 마음씨가 이어지고, 정성으로 빚어진 도자의 솜씨와 편편하고 넉넉한 산과 들의 형세에서 쏟아져 나는 곡식 알알에서도 여주민의 마음씨는 윤택하다고 할 수 있다.

설사, 역사의 소용돌이로 인하여 한이 서린 가슴 앓이가 있다 하여도 혈육과 이웃은 그대로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마음씨를 흙으로 도자를 빚듯이 서로 삭혀 주면서 대를 곱게 잇는 고원 가꾸는 순박한 백성이 예나 이제나 살 뿐이니, 여주는 여강의 푸른 물빛만큼이나 유유한가 보다.

—여강은 급하지 않은 호수같은 물 흐름이다.
—내륙지방의 곡창이 군데군데 이어져 있어,
—평야가 확 틔어서 언제나 공기가 상쾌한 고장이니,

이 말은 일찌기 「택리지」에서, 목은 선생의 시와 서거정 선생의 글에 있는 여주 찬사의 일절이다. 백운 선생을 필두로 하여 목은 시호와 같은 시인 묵객들의 숨결이 길목과 강가 풀잎에 서려 그때의 발자취가 세세만년 내리다가 끝내는 성군 세종의 숨결을 품은 문화 상징의 긍지높은 고장으로 계

승이 되고 있는 것이다.

6, 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추세에 의해 문화를 외면하고 도시로 거처 이동을 하던 시류에 눈 돌리지 않은 채, 오로지 지역문화 계도에 횃불을 든 선두주자로 지금껏 외길을 걸어온 이가 다른 이 아닌 오늘의 안금식 문화원장임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다. 안 원장께서는 여주문화원 첫 문을 열었던 당시에 「영릉촌」이라는 문학 써클의 불씨도 고이 간직한 채 지금까지 여러 방면의 숨은 얼과 민족문화 개발에 분망하더니 뒤늦은 오늘에 이르러서 이 한권의 동인 시선집을 창간하는 열기를 되살아 내는 데도 힘을 쏟고자 하므로 나와의 오래된 시절의 반갑고, 줄기찼던 청년시절 꿈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감정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전국 백일장을 개최하여 문단에 재기있는 시인도 배출시켜 주는 일에 앞장섰던 여주문화원에서, 전국 시인 세미나 주선, 도자기 전시회 후원, 청소년 문화강좌, 문화코너 상설 운영 등 이루 헤아릴 길 없는 문화의 본 고장답게 높이 쌓아온 탑이 신륵사 벽탑 만큼이나 우뚝하다.

기러기 날개 짓이라든가 백사장의 달빛, 유유한 돛배, 학동의 연기, 신륵사 종소리, 강물의 어룡, 봄 하늘의 신록 내음, 솔향기 풍기는 수풀 등을 한데 일러 「여주의 절경」이라 하였던 산자 수려함이 오늘도 크게 변치 않았고, 후덕한 인심과 숱하게 많은 여주군내의 일화들을 강물속에 담가 놓고 오늘을 굿굿히 살라 하나 보다. 이 아름다운 풍광이 오늘의 산업사회에선 더없이 명소일 수 밖에 없는 무공해 지역으로

서, 머지않아 여주는 분명 혼탁한 세대에서 보호받을 건 보호를 받고, 사랑받을 건 또 사랑을 받는 전국 명소의 고장이 되어 후대를 즐겁게 하리라.

모쪼록, 「영릉촌」이란 잊혀질 세월의 시문학 동인 불씨를 다시 일구어 오늘의 청소년들 세대가 아끼고 살펴 이 시대가 아닌 먼 훗날의 거목으로 추앙받을 큰 인물이 배출되길 은근히 기대하여 보는 마음 뿐이다.

1990년을 눈앞에 두고

사단법인 여주문화원은
오늘도
개성에 바탕을 둔
창의력을 존중하며
이땅에
문화의 낙토를
우리 손으로 일구고자
언제나
머리 조아리며
군민과 더불어 굳게 손잡고
미래를 향한
선진조국 창조를 위해
줄기차게
보람찬 행진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임원일동—

여주문화원의 임원

원 장	안 금 식
이사장	박 광 식
부원장	정 용 우
〃	황 웅 구
이 사	박 홍 수
〃	이 용 환
〃	김 창 영
〃	박 근 출
〃	박 명 수
〃	권 재 성
〃	안 창 복
〃	차 용 남
〃	김 영 준
감 사	김 종 성
〃	박 기 석

영릉촌(문학동인지)

1989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안 금 식

편집인 이 일 섭

발행처 사단법인 여주문화원

☎83-3450 · 83-3200

편집진 김진화 · 변찬선

인쇄처 을지문화사☎279-4782~3

서울 · 중구을지로3가262-1

*이책은 국고와 지방비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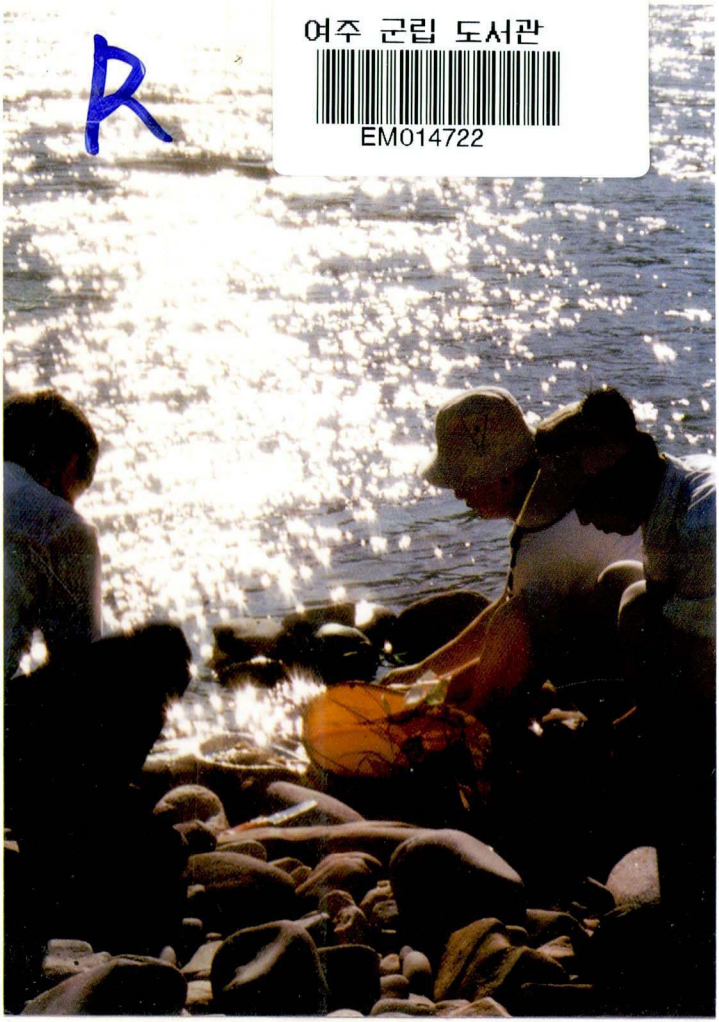
……아름다운 마음씨를 흙으로 도자를 빚듯이 서로 삭혀 주면서 대를 곱게 잇는 고원 가꾸는 순박한 백성이 예나 이제나 살 뿐이니, 여주는 여강의 푸른 물빛만큼이나 유유한가 보다.

—여강은 급하지 않은 호수같은 물 흐름이다.
—내륙지방의 곡창이 군데군데 이어져 있어,
—평야가 확 틔어서 언제나 공기가 상쾌한 고장이니,

전국 백일장을 개최하여 문단에 재기있는 시인도 배출시켜 주는 일에 앞장섰던 여주문화원에서, 전국 시인세미나 주선, 도자기 전시회 후원, 청소년 문화강좌, 문화코너 상설운영 등 이루 헤아릴 길 없는 문화의 본 고장답게 높이 쌓아온 탑이 신륵사 벽탑 만큼이나 우뚝하다.

……

모쪼록, 「영릉촌」이란 잊혀질 세월의 시문학 동인 불씨를 다시 일구어 오늘의 청소년들 세대가 아끼고 살펴 이 시대가 아닌 먼 훗날의 거목으로 추앙받을 큰 인물이 배출되길……

……〈발문 중에서〉

여주 군립 도서관
EM014722